

순 서

1. 성호경
2. 시작성가 : 가톨릭 성가 245번(맑은 하늘 오월은)
3. 시작기도 : 사랑이신 주님, 5월 성모성월을 맞아 일생을 주님과 함께 하신 성모님을 기억하고 본받고자 저희 가족이 함께 모였습니다. 성모님은 참으로 신앙의 모범이요, 특별히 일생 동안 고통과 외로움, 주위의 차가운 눈빛마저도 기도와 희생으로 기꺼이 감수 인내하신 분이셨습니다. 오늘 성모의 밤을 시작하며, 저희 모두가 성모님처럼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구세주 그리스도께 대한 굳건한 믿음과 충실한 생활로, 우리 자신을 봉헌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4. 복음 : 루카 1,39-56 (잠시 묵상)
5. 헌화 및 초, 예물, 편지 봉헌 (이 중 하나 이상 봉헌 권고)
6. 교황님의 성모님께 바치는 기도
7. 묵주 기도 : 영광의 신비
  - 1) 성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 2) 세계 평화와 우리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 3) 고통 받는 이웃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 4) 본당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 5) 우리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8. 성모님께 자기를 바치는 기도
9. 마침성가 : 가톨릭 성가 238번(자모신 마리아)
10. 성호경

# 2020 가정 성모의 밤



2020년 5월 성모성월 중  
각 가정교회



천주교 성 바실  
한인 성당

St. Basil Church Korean Catholic Apostolate

성모님께 자기를 바치는 기도

-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저희는 비록 성모님을 모시기에 합당하지 않사오나  
성모님의 사랑을 굳게 믿으며  
모든 천사와 더불어  
당신을 어머니로 모시는 저희를  
자애로이 지켜주소서.
- 저희는 당신 아들 예수님을  
더욱 충실히 섬기며  
어머니 슬하에 살기로 약속하나이다.
- 십자가에 높이 달리신 예수님께서서는  
숨을 거두시며  
당신 자신은 성부께 맡기시고  
성모님은 제자에게, 제자는 성모님께 맡기셨나이다.
- 지극히 거룩하신 어머니,  
십자가 밑에서 맺어진 모자의 인연으로  
저희를 품에 안아주시고  
온갖 위험과 고통 중에 돌보아 주시며  
저희 죽을 때에 저버리지 마옵소서.
- ◎ 아멘.

성모님께 바치는 기도 1

(프란치스코 교황님)

성모 마리아님,  
언제나 구원과 희망의 표징으로 저희의 길을 밝혀 주소서.

병자의 치유이신 성모님,  
늘 굳은 믿음을 간직하시어 십자가 아래에서 예수님의 고통에 함께하셨으니 저희도 성모님께 의탁하나이다.

저희의 구원이신 성모님,  
갈릴래아 카나에서처럼 이 시련의 때가 지나고 다시 기쁨과 축제의 때가 찾아올 수 있도록 성모님께서서는 저희에게 필요한 것을 아시고 마련해 주실 것을 믿나이다.

거룩한 사랑의 성모님,  
저희가 아버지의 뜻을 충실히 따르고 예수님 말씀대로 행동할 수 있게 도와주소서.

예수님께서서는 십자가를 통하여 몸소 저희의 고통을 짊어지시고 저희의 슬픔을 떠안으시어 저희를 부활의 기쁨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아멘.

천주의 성모님,  
당신의 보호에 저희를 맡기오니 어려울 때에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외면하지 마시고 항상 모든 위험에서 저희를 구하소서.

영화롭고 복되신 동정녀시여.